

안느 에베르의 중·단편집 『격류』에 드러나는 소외의 시대상

강 총 권
(아주대학교)

머리말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 향토소설이 지배하던 퀘벡의 문단에 현대소설의 길을 연¹⁾ 작가 중의 한 사람인 안느 에베르(Anne Hébert)는 1950년에 중·단편집 『격류 Le torrent』를 펴냈다. 여기에는 5편의 중·단편인 《격류 Le torrent》(1945), 《도미니크의 천사 L'ange de Dominique》(1944), 《산호색 드레스 La robe corail》(1938), 《카트린의 봄 Le printemps de Catherine》(1947), 《광장의 집 La maison de l'esplanade》(1942)이 실려 있었다. 그 후 1963년에 두 편의 중편소설 《오귀스탕의 결혼 Le mariage d'Augustin》(후에 《성대한 결혼 Un grand mariage》으로 작품명이 수정됨)(1962) 과 《스텔라의 죽음 La mort de Stella》(1962)을 더

1) 햄블릿은 퀘벡인의 영혼과 그 복잡성을 드러냄으로써 안느 에베르의 작품이 현대 프랑스어권 캐나다 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단계를 마련했다고 평하고 있다. Hamblet (E.), *La littérature canadienne francophone*, p.72: “Poète et romancière, son oeuvre a marqué une étape importante dans l'évolution de la littérature canadienne francophone contemporaine en dévoilant l'âme québécoise dans toute sa complexité.”

하여 새로 중·단편집 『격류 Le torrent』를 펴낸다. 이 작품집을 처음 펴내려 했을 때 너무나 폭력적이라고 출판사들이 거절하여 저자가 자비로 간신히 출판하기도 했다.²⁾

왜 위의 일곱 편을 하나의 작품집에 묶어서 출간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때, 우리는 나중에 추가된 두 편을 포함한 일곱 작품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인간 소외의 시대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작가 안느 에베르는 자기 작품에 대한 도식적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Je m'étonne quand la critique décrit le *Torrent* comme le symbole du Québec enchaîné.

C'est une abstraction. Il faudrait plutôt s'interroger sur la fonction de la mère, de la religion, ce sont des problèmes essentiels du moins en ce qui me concerne.

비평이 《격류》를 속박되어 있는 퀘벡의 상징으로 기술할 때면 나는 놀라요. 그건 추상화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와 종교의 기능에 대해 질문해야죠. 적어도 내겐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³⁾

여기에서 작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는 『격류』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단순히 어머니와 종교의 기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정적 혹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우는 각기 다르지만 『격류』의 주인공들은 가정 혹은 사회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로부터 소외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소외는 스스로 초래한 소외가 아니라 가족이나 타인이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폭력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폭력은 개개인을 억압하고 왜곡하고 파괴하는 악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설들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소외 현실과 그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반응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Biron (M.) et al., *Histoire de la littérature québécoise*, p.312.

3) 로버트 하비(Robert Harvey)의 『격류』 서문에서 재인용. T(이하 중·단편집 Le Torrent을 이와 같이 약호로 쓰기로 함), pp.7-8.

I. 소외 - 불구화하는 현실

우리가 소외를 불구화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가 불구가 아니거나 불구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폭력으로 인해서 개인의 정체성 확립이나 사회적 동화(사회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구의 상태처럼 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이다.

1. 정신적 불구화

1) 프랑수아

이 정신적 불구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은 《격류》에서 어머니 클로딘의 사생아인 프랑수아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실의 소산인 아들 프랑수아를 증오하며 그를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아 그를 강제로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클로딘은 그에게는 악의 화신과도 같다. 그녀가 아들을 도구로 여기는 것만큼이나 아들 역시 타인과 세상을 도구로만 여기도록 교육된다. 프랑수아가 회고 식으로 기술하는 작품의 맨 처음의 언술과 그 다음 단락의 첫 언술은 프랑수아의 존재를 요약하는 함축적이고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J'étais un enfant dépossédé du monde. (T, p.19)

나는 세상을 박탈당한 아이였다.

Je n'ai pas eu d'enfance. (T, p.19)

나에게는 유년기가 없었다.

어머니 클로딘이 자리 잡은 영지 속에 갇혀 지내는 프랑수아에게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교육된다. 끊임없이 다그치는 모친 때문에 그는 귀가 멀기 전에는 여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행복했던 기억도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세상과 단절시키는 가정에서 성장했기에 신부가 될 목적으로 진학한 중학교에서 그는 외톨이가 된다.

Le résultat pratique, si l'on peut dire, de ma première rencontre avec autrui, fut de me mettre sur mes gardes et de replier à jamais en moi tout geste spontané de sympathie humaine(...) J'entrai au collège dans ces dispositions(...) Je repoussais leurs avances timides ou railleuses. Bientôt le vide se fit autour du nouvel élève. (T, p.28)

말하자면 타인과 내가 첫 번째 만난 실제의 결과는 내가 경계 태도를 취하고 모든 인간적인 호의의 자발적인 몸짓을 영원히 내 안에 접어놓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성향을 지니고 중학교에 들어갔다(...) 나는 동급생들의 수줍거나 농담기 있는 제안들을 거절했다. 이윽고 새로 온 학생 주위에는 텅빈 공간이 생겼다.

Je ne savais ni jouer ni rire et je me sentais de trop. (T, p.29)

나는 놀 줄도 웃을 줄도 몰랐고 나 자신이 잉여라고 느꼈다.

동일시할 부친도 없고 일을 시킬 때 빼고는 말을 거는 적도 없는 폭압적 인4) 모친 밑에서 도구의 삶을 살아온 프랑수아가 스스로를 사르트르 식으로 잉여적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이 배경으로 있다고 해서 《격류》가 향토 소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이고 도시적이며 존재론적인 소설이라고 한 브로쉬의 지적은 옳다고 하겠다.5) 프랑수아는 정체성을 확립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열일곱 살이 된 프랑수아는 기쁨도 알지 못하고 황폐하고 무기력한 상태의 청소년일 뿐이다.

4) 루아가 잘 지적하듯이 클로딘이 아들 프랑수아를 바라보는 강렬한 불꽃같은 시선은 폭압적이고 그에게 굴욕감을 주는 시선이다. Roy (L.), 'Anne Hébert ou le désert du monde', in *Anne Hébert en revue*, p.55: "(...) le regard intense de Claudine, qui s'impose à François et l'humilie."

5) Brochu (A.), *Anne Hébert, le secret de vie et de mort*, p.33: "La présence de la nature ne suffit pas à faire de ce récit une oeuvre du terroir. Au contraire, rien de plus citadin ou intellectuel, en un sens, de plus ontologique en tout cas (...)."

Moi, je ne connaissais pas la joie. Je ne pouvais pas connaître la joie. C'était plus qu'une interdiction. Ce fut d'abord un refus, cela devenait une impuissance, une stérilité. Mon coeur était amer, ravagé. J'avais dix-sept ans. (T, p.30)

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기쁨이란 것을 알 수도 없었다. 그것은 금지된 것 이상이였다. 그것은 처음에는 금지였다가 무력함과 불모성이 되었다. 내 마음은 쓰라리고 황폐했다. 나는 열일곱 살이었다.

2) 스테파니와 주위 인물

단편 《광장의 집》에서 스테파니 드 비셰트 양은 하녀 제랄딘의 시중을 받으며 공주처럼 행세하는 노처녀이다. 젊은 사람이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든 모든 방문객들에게 던지는 말이란 “모친의 건강은 어떠세요?”라는 질문일 뿐이다. 손님 접대의 화술을 전혀 모르며, 찾아오는 남동생과 말없이 식사만 하는 그녀는 마치 외계인 같다.

(...) une petite fille (...) qui semblait déjà participer au monde peu rassurant des êtres surnaturels. (T, p.117)

별로 안심되지 않는 초자연적 존재들의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소녀.

그런가 하면 누이의 집에 와서 언 몸을 녹이고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 들르는 남동생 샤를르 부부는 무언가 유산상의 이익을 고대하며 누이의 죽음을 기다리는 기생적인 존재들이다. 샤를르가 집에 돌아와 아내와 나누는 대화는 이를 십분 암시한다.

- Comment va ta soeur?

- Toujours la même...

Ces deux bouts de phrase, comme chaque soir, tombaient lourdement Sous les paroles banales avouées bougeait dans l'ombre le dialogue réel et silencieux des deux époux : *Penses-tu que ta soeur en a encore pour longtemps? - Hélas, elle tient toujours...* (T,

p.120)

- 누나는 어때요?

- 늘 똑같지...

저녁마다 이 두 마디 말은 무겁게 떨어졌다. 내뱉는 진부한 말 밑으로는 두 부부의 말없는 진짜 대화가 어둠 속에서 오가고 있었다. (...) : 누나가 아직도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 불행히도 누나는 여전히 버티고 있어.

다른 한편으로 충직해 보이는 제랄딘은 날씨에 따라 스테파니의 외출 여부를 임의로 조정하고 사실상 스테파니를 더욱 고독과 자기중심주의에 빠뜨리는 가해자에 가까우며 허무의 존재인 스테파니가 잠에 들 때 집을 지키며 내심 스테파니의 죽음을 기다리는 인물이다.

Stéphanie de Bichette croisait ses minuscules mains froides et abandonnait au grand néant de la nuit son petit néant à elle (...) Et Géraldine veillait, en rêvant que la mort avait clos toutes les portes de la vieille demeure. (T, p.120)

스테파니 드 비셰트는 차가운 조그마한 두 손을 포개고는 자신의 작은 허무를 밤의 커다란 허무에 내맡겼다 (...) 그리고 제랄딘은 스테파니가 죽어서 이 오래된 집의 모든 문을 닫을 것을 꿈꾸며 밤을 지키고 있었다.

3) 스텔라

중편 《스텔라의 죽음》을 보면 남편 에티엔과 정식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배척되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전하며 살아온 스텔라는 남편이 죽은 이래로 폐 질환에 걸려 누운 채 4남매를 데리고 극빈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남편과 같이 생활했을 때 그들은 헐벗음 속에 가득 찬 지복을 역설적으로 느끼며 살아갔었다.

Une sorte de plénitude dans la dépossession, ils éprouvaient cela, tous les deux ensemble (...) Une sorte de félicité. (T, p.164)

박탈 속에 일종의 충족감을, 그들은 둘 다 이것을 느끼고 있었다. 일중

의 지복을.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아무런 자존심도 자부심도 반항심도 없이 세상 모든 것이 불쌍하게만 보이는 존재로 남았다. 세상의 따스함을 누릴 권리도 없이 그녀에게는 삶에 대한 갈증만 남았다.

N'avoir aucun pouvoir sur la douceur du monde. Ne rien retenir de la vie que le soif. (T. p.155)

세상의 따스함을 누릴 아무런 권리도 없다. 삶에 대한 갈증만 남아 있을 뿐.

2. 육체적 불구화

중·단편집 『격류』에 나오는 인물들 중 일부는 다리가 마비된 《도미니크의 천사》에서의 도미니크 외에 불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왜소한 체격과 외모로 말미암아 불구자로 취급받으며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두 단편소설 《산호색 드레스》에서의 에밀리와 《카트린의 봄》에서의 카트린이 그들이다.

1) 에밀리

에밀리는 아이만한 키에 훗하게 큰 눈을 가진 처녀이다. 새로 온 그녀의 체구를 보고 동료들은 조소를 금치 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뜨개질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주인의 마음에 들어 별도의 배려를 받는다. 세상의 무시 가운데 뜨개질은 그녀 스스로 생각하듯 자신의 ‘유일한 존재 이유 la seule raison de vivre’(T, p.84)이다. 이러한 그녀에게 저녁마다 아코디언을 켜며 구애의 노래를 부르는 가브리엘이 접근한다. 남자를 꿈도 꾸어보지 못한 그녀가 숲속에서 가브리엘과 사랑을 나눈 뒤 가브리엘이 약혼녀를 보러 떠나면서 그녀에게 보내온 것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 꺼려했던 에밀리가 내심 가지고 싶었던 거울이다. 울음을 터뜨리는 그녀를 보고 여주인은 그녀의 육체적 약점을 고정시키듯 잘라 말한다.

Et que, à l'avenir, pareille "distraction" ne se renouvelle plus...
Tricotez! Vous êtes au monde pour cela! (T, p.91)

이제 앞으로 그런 일탈행위는 다시 하지 말거라... 뜨개질을 해! 너는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야.

2) 카트린

카트린은 선술집에서 일하는 처녀이다 선술집 카운터를 간신히 넘는 그녀
의 키를 보고 사람들은 앞잡아서 별명으로 벼룩의 뜻을 환기시키며 땅꼬마
의 뜻을 지닌 단어인 '퀴스'라고 호칭한다. 비굴한 태도와 표정으로 시종일
관하며 시중을 드는 그녀는 "복종과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기계일 뿐 tout
l'appareil ordinaire de sa servitude et de sa crainte"(T, p.98)이다. 그리하
여 그녀는 이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 악한 일을 통해서라도 삶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한다.

Délivrez-moi de mon pain quotidien! Que je touche au mal,
puisque c'est la seule brèche par laquelle je puisse atteindre la vie!
(T, p.98)

매일 벌어야 하는 이 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악에 접하게 해주세요.
그게 삶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틈새길이니깐요.

그러다 전쟁이 발발하고 적군이 마을로 다가오자 카트린을 노예처럼 부려
먹던 주인들은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간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
인 것이다.

Les maîtres sont partis. Personne ne s'occupe de Catherine. Après
l'avoir asservie, déformée, on la relâche dans la vie, puisqu'on n'a
plus besoin d'elle. (T, p.100)

주인들은 떠나갔다. 아무도 카트린을 돌보지 않는다. 그녀를 노예로 흥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그녀를 삶 속에 풀어놓아 버린 것
이다.

끊임없이 시달리며 기쁨이란 것은 모르고 살아온 점에서 그녀는 프랑수아와 마찬가지로이다. 기억이 될 만한 추억도 없는 채 신산한 삶이 이어져 그녀는 자기 육신의 나이도 모른다.

“Mon âge? Puis-je savoir exactement? Les années sans trêve ni joie ont été si bien jointes les unes aux autres. Aucun point de repère. J’ai encaissé les coups, les injures, le travail...” (T, p.101)

“내 나이랴?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나? 휴식도 기쁨도 모르고 지낸 해들이 너무나 서로 잘 이어졌지. 아무런 표시도 없어. 나는 구타와 육설과 노동을 참고 견뎌왔지...”

3. 역사적 사회적 외상

중·단편집 『격류』에 나오는 인물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원인은 단지 개인 차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배경에는 역사적, 사회적 원인도 깃들여 있다.

1) 사회의 전근대성

중편 《격류》에서 악의 화신처럼 부각되는 프랑수아의 어머니 클로딘을 예로 들어보자. 아들에 대한 가학적인 가해자인 그녀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생아와 사생아를 낳은 여인을 용인하지 않던 당대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 홀몸으로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그녀를 인간 사회와 단절된 오지로 내몬 것은 관용과 포용 정신이 아직 깃들지 못한 당대의 시대정신과 풍습의 소치이다. 그런 점에서 클로딘 그녀 또한 당대 사회로부터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피해자이다.

다른 한편 《스텔라의 죽음》에서의 스텔라 부부는 성당에 기록된 결혼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며 교회 신부조차도 빈정거리는 어투로 그 증명서를 찾아오라고 한다.

Stella eut beau protester, affirmer que leur mariage était inscrit dans le registre de Sainte-Rose, le curé leur recommanda, non sans

ironie, de reprendre la route et de retrouver cette paroisse mystérieuse. (T, p.168)

스텔라가 항의하며 자신들의 결혼이 성 장미 본당의 기록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었다. 신부는 길을 떠나서 그 수수께끼 같은 본당을 찾아보라고 빈정거리는 어조로 권고했다.

이처럼 결혼이라는 형식을 당사자와 그 자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요건으로 요구하던 당대의 전근대성을 확인하게 된다. 게다가 가난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사는 스텔라 부부를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던 당대의 사회상을 보자.

Etienne et Stella étaient pauvres, sans honte ni pudeur. Et c'est justement cela qu'on leur reprochait, cette insoutenable innocence dans le malheur. On essaya d'éveiller la culpabilité chez eux. On s'efforça d'imaginer le péché originel dans l'âme de cet homme et de cette femme. (T, p.167)

에티엔과 스텔라는 가난했지만 수치심도 수줍음도 없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불행 속에서도 순수무구한 점을 보고 못마땅해 하며 그들을 비난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일깨우려 했다. 사람들은 이 남자와 여자의 영혼에서 원죄를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이와 같이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의 시기에서 제도권의 형식과 부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시하고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외모상의 약점을 지닌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당대인들의 전근대적 윤리 수준을 엿볼 수 있다.

2) 종교의 권위주의

퀘벡에서 60년대에 시작된 ‘조용한 혁명 La révolution tranquille’ 이전까지 가톨릭 교단이 정치와 경제와 교육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독단성과 폐쇄성으로 가톨릭 교단은 퀘벡을 후진된 지역으로 만들어 그 위기를 심화시킨다.

Cette profondeur persistante de l'emprise de l'Eglise masque sans doute à bien des Québécois de la première moitié du XXe siècle la force des facteurs qui transforment la société (...). L'Eglise la fait mourir de langueur culturelle et économique.⁶⁾

지속적으로 깊숙이 지배함으로써 교회는 20세기 전반기의 수많은 퀘벡인들에게 사회를 변혁시킬 요소들의 힘을 가려놓는 것이 분명하다 (...) 교회는 퀘벡 사회를 문화적 경제적 무기력 상태로 죽게 만든다.

『격류』에서 가톨릭 신앙은 소외 계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스텔라의 죽음》에서 스텔라 부부의 결혼허가증을 문제 삼아 이야기하는 신부의 모습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에 앞장서는 신부가 아니라 관료주의에 빠져 있던 60년대 이전 퀘벡 사회의 가톨릭 교단의 모습을 환기시킨다. 또한 스텔라가 죽으며 남긴 유언을 만딸인 마리가 제대로 들은 것인지 모르게 읊긴 말은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마리 Il faut avoir pitié, Marie”(T, p.171)라는 표현으로서 어찌 보면 반종교적인 현실에 절망한 스텔라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한 말 같기도 하다.

《카트린의 봄》에서는 포성이 울려오고 도처에 불을 지르며 적들이 다가오는 전장에서 화자는 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탄하며 절규한다.

Sur son passage, il[l'ennemi] allume, un à un, les villages, les villes, les forêts et les arbres, au long des routes(...) Que restera-t-il de nous, de nos enfants, de nos oeuvres (...) le pays entier connaîtra-t-il l'épreuve du feu? Notre Dieu chrétien est-il endormi? (T, p.93)

길을 따라 지나가면서 적들은 마을, 도시, 숲, 나무마다 불을 질러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 중에 무엇이 남아나겠어요? 나라 전체가 불의 전쟁을 겪을 건가요? 우리 기독교의 하느님은 잠들었나요?

6) Meyer (Ph.), *QUÉBEC*, p.52.

위에서 전쟁을 소재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조용한 혁명’ 이전의 퀘벡의 가톨릭 교단이 퀘벡 주 형성의 초기에 퀘벡인들을 통합하고 구제하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현대에 이르러 오히려 퀘벡인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소외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유추적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비평가 마르크트르 《격류》의 프랑수아의 모습에서 당대의 폭압적인 교회의 명에서 벗어나려는 퀘벡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⁷⁾

3) 영국 치하의 상흔

《위대한 결혼》에서 오귀스탱이 구입한 고층 건물이 있는 시내를 묘사하는 한 대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우리는 안느 에베르의 『헨가마우지 Les Fous de Bassan』를 다룬 이전의 논문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마을 그리핀 크릭을 퀘벡인들의 영국 치하 식민지 경험을 환유하는 공간으로 해석한 바 있다.⁸⁾ 그런데 《위대한 결혼》의 다음 귀절은 비록 영국의 점령을 언급한 보기 드문 하나의 귀절에 불과하지만 그 상흔을 드물게 내비친 만큼 더욱 더 안느 에베르의 작품 세계의 한 요소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oute une petite ville têtue, repliée sur elle-même, armée dans son
coeur étroit, depuis la Conquête anglaise. (T, p.127)

영국이 정복한 이래로 완고하게 자신 속에 파묻혀서 좁은 가슴 속에 무장하고 있는 작은 도시 전체의 사람들..

안느 에베르의 작품에서 우리는 때때로 근원을 가늠하기 힘든 등장인물들의 폭력을 목도하게 된다. 불시에 몰아치는 파괴, 강간, 살인 등의 욕구는 그 부모나 친척 혹은 주위 인물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그

7) Cassista (C.) et Simard (J.), *LE TORRENT de Anne Hébert*, p.42: “Gilles Marcotte, a ainsi reconnu dans la quête de François celle du Québec voulant se débarrasser du joug d’une Eglise oppressante.”

8) 줄고, 「안느 에베르의 『헨가마우지』에 나타난 퀘벡인의 자화상」, 『프랑스학연구』 제50집, 2009.

래서 우리는 뚜렷한 가정적, 사회적 근인이 없이 화산처럼 분화하는 폭력의 원인을 내면화된 역사적 외상에서 찾으려 한다. 위의 화자의 묘사는 주관적 묘사이지만 바로 우리의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756년에 시작되어 후에 세계사를 바꾸게 된 프랑스와 영국 간의 7년 전쟁은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에서 동시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초기에 북아메리카에서 승진보를 이어가던 프랑스는 아플렝과 프로방세가 서술하듯⁹⁾ 점증하는 영국과 미국의 협공 앞에서 본국의 증원군과 지원 없이 결국 패하게 된다. 1759년에 퀘벡시가 점령되고 1760년에 몬트리올이 함락됨으로써 명분상으로는 7년 전쟁이지만 사실상 영국의 점령은 1763년의 파리 조약 이전에 1760년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본국이 결정적인 시기에 유럽의 전쟁에 전념하고 북아메리카를 외면한 것이 바로 영국이 북아메리카를 차지하게 된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된 것이다.

위의 구절은 문득 시공을 뛰어넘어 17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을 주면서 퀘벡인들의 뿌리 깊은 역사의식을 시사하고 있다. 퀘벡의 명구로 쓰이는 “나는 기억한다 Je me souviens”¹⁰⁾라는 말이 기실 “나는 우리 퀘벡의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프랑스에 뿌리를 둔 후에라는 자부심과 프랑스 본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해묵은 원한의 감정, 영국의 점령하에서 겪던 폭력과 수모 등이 모든 것이 그 기억 속에 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영국 점령 시에 겪었던 폭력이 어떻게 퀘벡인에게 대대로 내면화되어 왔을까 하는 점이다. 위의 구절을 단서로 하여 『격류』 전체를 조감할 때 우리는 이 작품집에 나타나는 폭력이 대부분 피해자로서 당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작가 안느 에베르가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해 달라는 주문과 달리 작가도 모르게 영국의 점령 치하에서 프랑스계 퀘벡인들이 겪던 폭력의 외상을 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

9) Hamelin (J.) et Provencher (J.), Brève Histoire du Québec, pp.37-38 참조.

10) 이 명구는 1883년 퀘벡 의사당을 건축한 건축기사 타세(Eugène-Étienne Taché)가 퀘벡 주 문장 밑에 새겨놓은 문구로서 현대에 와서 퀘벡 주의 모든 자동차 번호판에 새겨놓게 될 정도로 퀘벡의 모토가 되었는데 정작 타세 자신은 이 명구와 함께 퀘벡의 건설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상들을 건물 정면에 장식하고자 한다는 서한 이외에는 이 명구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 별다른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다.

을 해보는 것이다.

II. 소외에 대한 반응의 제 양상

앞에서 본 것처럼 『격류』의 각 작품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해진 소외를 겪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주목할 점은 그들이 이 소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환상 속으로의 도피

《도미니크의 천사》에서 도미니크는 다리가 마비되어 의자에 앉아 보내는 장애 소녀이다. 어느 날 그녀 앞에 나타나 정원에서 춤을 보여주는 젊은 선원 이자(Ysa)는 그 후 그림자처럼 나타나 춤을 추면서 그녀에게 마법을 거는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기에 도미니크는 이자가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자가 나타나 그녀를 천사의 춤의 세계로 이끌수록 그녀는 그러한 춤과 꿈의 세계 그리고 장애자로서 겪는 자신의 일상사 사이에 점점 더 간극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드디어 어느 날 이자의 출현과 그의 마력에 따라 도미니크는 일어나 성큼성큼 짐을 걸어 나와 바닷가로 향해 해변에서 지치도록 심장이 멎도록 춤을 추다 쓰러진다. 이를 본 이자는 저주받은 자의 고통을 지르며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사라진다.

그런데 도미니크는 다시 살아난 것으로 마지막 장면은 묘사하고 있다.

Quant à Dominique, tard dans la nuit, on l'a retrouvée chaude et douce encore. Pour elle, le désir de l'Ange s'était réalisé; en plein éblouissement, nue comme David, elle dansait devant l'Arche, à jamais. (T, p.82)

도미니크로 말하자면 밤늦게 사람들은 그녀가 몸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인 것을 다시 발견했다. 그녀에게는 천사의 욕망이 실현된 것이었다. 온통 찬란하게 다윗처럼 옷이 벗어진 채 그녀는 법궤 앞에서 영원히 춤을

추고 있었다.

이 장면은 진정 도미니크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춤을 다시 추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일화를 환기시키는 환상의 세계로 뛰어든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장면에 대해서 허프만은 ‘몽환상태’에서의 ‘형이상학적인 정화’라고 명명하기도 했다.¹¹⁾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은 많은 퀘벡인들이 이끌리는 유혹 중의 하나인 현실 도피적 환상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이러한 상황 설정과 묘사는 나중에 안느 에베르가 발표하는 소설 『흰가마우지』를 예고하는 셈이기도 하다.

2. 자기 파괴

1) 프랑수아

방학이 되어 과목별 1등상 상품들인 책 여섯 권과 함께 장학금도 받아온 날, 상을 얼마나 받았느냐는 냉랭한 질문과 함께 장학금을 가로채듯 가져가는 어머니에게 프랑수아는 자기가 깊은 증오심을 지니고 있음을 자각한다. 신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가 던진 말에 어머니는 목직한 열쇠 못치로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후려쳐서 그는 귀머거리가 되고 만다. 이후 그는 어머니와 더욱 단절되고 독백과 같은 생각과 함께 자기 속으로 침잠한다.

그런 생활 가운데 새로 온 말 페르스발은 반항과 광기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말도 길들이던 모친이 길들이지 못하게 된다. 그 점에서 프랑수아는 페르스발에 매혹되고 일종의 보상심리에서 그 말을 부리위하며 동일시하고 싶어 한다. 그가 풀어 놓은 말에 짓밟혀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 돈으로 산 행상 처녀 아미카와 부부 아닌 부부처럼 지내게 된 그이지만 그의 삶은 삭막함의 연속이다. 기실 애초에 그녀를 들이려 한 것도 그의 가학적 욕구뿐만 아

11) Huffman (Sh.), ‘L’Enfermement et le Bref chez Gabrielle Roy, Anne Hébert et Adrienne Choquette’, in Lord (M.) et Carpentier (A.), *La Nouvelle québécoise au XXe siècle, de la tradition à l’innovation*, p.78: “C’est une sorte d’«épuration» métaphysique, où la compression spatiale, combiné à l’onirisme (véhiculé par le personnage d’Ysa) écrase la dimension corporelle de Dominique afin qu’elle puisse accéder au «geste pur» symbolisé par la danse.”

나라 자기 파괴적 욕구에서도 기인한 것이었다.

J'éprouve une telle sécheresse. Ni désir, ni volupté. (T, p.45)

나는 너무나 큰 삭막함을 느낀다. 욕망도 관능도 없다.

Posséder et détruire le corps et l'âme d'une femme. Et voir cette femme tenir son rôle dans ma propre destruction. (T, p.39)

한 여인의 육체와 영혼을 소유하고 파괴하기. 그리고 이 여인이 나 자신의 파괴에 한 몫 하는 것을 보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의 파괴력이 거울 속에서마저 느껴지며 점점 기독교의 원죄 의식도 아니고 어머니를 간접 살인한 죄의식도 아닌 무언지 모를 죄의식에 시달리는¹²⁾ 프랑수아는 종말인 무에 다다른다는 의식과 함께 마침내 격류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든다. ¹³⁾

Je me rends à ma fin. Je m'absorbe et je suis néant. (T, p.55)

나는 종말로 다가간다. 나는 흡수되고 무이다.

Je me penche tant que je peux. Je veux voir le gouffre le plus près possible. (T, p.56)

나는 할 수 있는 한 몸을 기울인다. 나는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 그 심연을 보고 싶다.

12) T, p.50: "Tout homme porte en soi un crime inconnu qui suinte et qu'il expie."

13) 적지 않은 평자의 글들은 프랑수아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프랑수아가 37세 전후로 추정되는 나이일 때 회고 형식으로 쓴 글이다. 그러므로 글쓰기의 끝과 자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의 유혹으로 해석한다. 피카르 드릴리앵은 병력 구술문이 자신의 시공간에 관한 서술이라 하여 프랑수아의 죽음을 허구적인 죽음으로 간주한다: "(...) la fin de l'anamnèse marque la fin de l'histoire (puisque la narration est autodiégétique) et la mort fictionnelle du sujet de l'énoncé(...)", Picard-Drillien (A.-M.), 'L'enfant du 《Torrent》 ou le sujet de l'oeuvre en puissance', in Paterson ((J.M) et Saint-Martin (L.), *Anne Hébert en revue*, p.96.

프랑수아의 경우 우리는 그를 소외시킨 폭력이 그 자신 속에 내면화된 후 타인에게로 외면화되지 않고 다시 그 자신을 향하여 자기파괴를 일으키는 자학적 폭력이 됨을 볼 수 있다. 브로쉬는 잃어버린 낙원에 프랑수아가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지만¹⁴⁾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 기실 행복했던 유년기도 없었던 이상 그에게는 잃어버린 낙원의 기억도 있을 수 없이 이와 같은 폭력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2) 카트린

왜소한 체구로 놀림감이 되던 카트린은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면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자 자유로움마저 느낀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진 것 같은 착각도 갖게 된다. 피난 도중 헛간에서 지친 몸으로 쉬던 중 그녀는 술 취한 한 병사와 육체관계를 갖게 된다. 잠시나마 카트린은 천하고 열등한 존재에서 벗어나 하나의 여자로 인정받고 공주가 된 듯한 환상을 지닌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잠든 병사를 보며 문득 카트린은 불안에 사로잡힌다. 병사가 잠이 깨고 술도 깨면 왜소하고 불품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잠들어 있는 병사의 목에 칼을 꽂아 그를 살해한다. 그 순간 놀라서 떠진 듯한 병사의 아이 같은 파란 눈 속에서 그녀는 유년기의 정원에서 쫓겨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

Dans cet oeil bleu qui se fige pour toujours, un instant elle a vu luire je ne sais quelle enfance, jardin d'où elle demeure à tout jamais chassée. (T, p.105)

영원히 굳어버릴 이 파란 눈에서 한 순간 그녀는 그녀가 영원히 추방된 정원과도 같은 그 어떤 유년기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 카트린이 왜소한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며 병사를 살해한 행위는 앞에서 우리가 본 바 그녀 자신이 기원했듯이 노예 같은 삶에서 해방시

14) Brochu (A.), *Anne Hébert, le secret de vie et de mort*, p.34: “Mais c’est bien *dé*-possession qu’il s’agit: le bonheur dont il est privé depuis sa naissance le hante comme un paradis perdu.”

키는 악으로서의 행위가 되지 못하고 브로쉬가 지적하듯¹⁵⁾ 어릴 적의 에덴 동산 같던 자연과의 합일도 이루어내지 못한다. 카트린은 자신을 그 자체로서 스스로 인정하길 거부하는 범죄로 자신의 과거와도 단절되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도 소외되는 자기 파괴적 면모를 보여준다.

3. 빛나간 복수

비교적 긴 편인 중편소설 《성대한 결혼》에서 주인공 오귀스탱은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는데 자기 출신 사향에 대해서 일체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인생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Au plus profond de son coeur Augustin éprouvait l'injustice de la vie comme une vieille blessure dont il avait juré de venger. (T, p.126)

가슴 깊이 오귀스탱은 오래된 상처처럼 인생의 불공정함을 느꼈다. 그는 이에 대해 복수하리라 다짐했었다.

“인생의 불공정함”은 『격류』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이 느끼고 겪는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귀스탱은 이에 대한 복수로서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인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출세 제일주의를 택해서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유한 집안의 여인과 타산적 결혼을 한다. 결혼 생활 도중 과거에 북극 지역에서 모피 사업을 할 당시 10년 동안 동거했던 인디언 혼혈녀 텔리아가 찾아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집안의 하녀로 들이고, 아내가 아이를 낳자 텔리아를 아내가 거부하는 애정 생활을 하는 상대로 삼는 목계가 아내와의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오귀스탱은 자신의 소외 상황 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와 편의주의로 도피한다.

15) Brochu (A.), *같은 책*, p.43: “Le mal, on le voit, représente une libération, une relative réalisation des aspirations profondes, mais il ne peut produire la réintégration de cette nature édenique, natale, qui est l’objet suprême du désir.”

4. 고착된 소외

『격류』에서 주인공들 이외에 우리는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영원한 국외자로 삶을 영위하는 인물들을 보게 된다.

1) 스텔라

《스텔라의 죽음》에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며 “나는 짐승처럼 살기 싫어!”라고 절규하는 말팔 마리의 말처럼 스텔라와 그녀의 자식들의 삶은 짐승의 삶이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삶이다. 늘 이웃에 식량을 구걸하며 연명하는 삶인 것이다.¹⁶⁾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아무런 사회보장제도도 없이 내몰린 이러한 극한의 삶을 화자는 말과 불평조차 없애지는 침묵의 삶이라고 웅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Poussée à de certaines limites, la vie se passe derrière la porte du silence. L'aventure trop forte nous saisit, nous submerge, nous transforme, s'accomplit si intimement, si totalement en nous, qu'elle se met à exister à notre place, nous dispensant de toute parole, de toute plainte. (T, p.165)

어떤 극한으로 내몰리면 삶은 침묵의 문 뒤에서 영위된다. 너무나 혹독한 운명은 우리를 움켜잡아 가라앉히고 변형시키며 우리 안에서 너무나 내밀하고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우리 자리에 존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어떤 말도 불평도 없게 만든다.

가난의 심리학 내지 가난의 사회학의 한 구절이라고 칭해도 좋을 이 묘사에서 드러나듯 스텔라는 폐병 환자이기 이전에 정신적인 외상이 쌓여서 삶의 의미를 찾기를 포기한 삶을 이어가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녀와 그녀의 자녀에게는 퀘벡 주 정부나 그 어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16) 주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설의 배경은 가족수당 법안이 통과된 1945년 이전의 시대로 추정된다. 그 이전인 30년대부터 라에즈(LaHaise R.)가 지적하는 것처럼 퀘벡은 1929년부터 1936년까지 7년간의 극빈기를 겪었으며 30년대는 전반적으로 빈곤기로 규정된다. LaHaise (R.), *La fin d'un Québec traditionnel 1914-1939*, pp.187, 210. 참조.

구원의 손길이 올 줄 모르고¹⁷⁾ 그녀는 임종성사도 없이 영원한 국외자로 처연하게 숨을 거둔다.

2) 아미카

《격류》에서 아미카는 프랑수아가 그녀와 같이 다니며 행상하는 남자에게 돈을 던져 주며 강제로 뺏다시피 한 여인이다. 그 후 내키지는 않지만 마음에 없는 미소를 지어가며 프랑수아의 육체적 요구에도 순순히 응하는 여인이다. 그러나 자신을 해칠지도 모를 프랑수아의 의중을 점차 꿰뚫어 보게 되며 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녀는 어쨌든 프랑수아가 겪었던 노예생활을 반복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녀의 영혼은 순수하지 않다. 애초에 프랑수아가 그녀에게 마음이 끌린 것도 그녀의 음험함이었던 것이다.

(...) ce qui m'a attiré plus que tout autre chose en elle, c'est justement ce je ne sais quoi de sournois et de mauvais dans l'oeil.
(T, p.43)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나를 유혹한 것은 바로 눈 속에 담긴 그 무언지 모를 음험하고 불량한 점이였다.

프랑수아와 아미카 공히 서로 마음을 터 놓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결국 아미카는 프랑수아 모친이 남겨 놓은 돈 봉투를 통째로 들고 도망친다. 처음에는 반발했으나 프랑수아가 뜻밖에 많은 돈을 주자 만족한 표정을 짓고 아미카를 넘겼던 이전의 그 남자에게 그녀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또다시 변방을 돌며 부초 같은 인생을 영위할 것이다.

17) 이러한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50년대까지도 지속되는 문제였다. 구조적 실업과 빈곤으로 인해서 미망인,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여인들, 불구자,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별 대책 없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Linto P.-A. et al., *Histoire du Québec contemporain, le Québec depuis 1930*, p.327. 참조.

3) 델리아

《성대한 결혼》에서 델리아는 태생적으로 소외된 인디언 혼혈녀이다. 조상들은 광활한 북아메리카를 지배했겠지만 그녀는 유럽인들이 진출해서 태어난 혼혈녀이며 더 이상 그 광활한 땅의 주인도 아니다. 순수 인디언 혈통이든 혼혈이든 그들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인 것이다.¹⁸⁾ 그녀가 오귀스탱을 진정 사랑했다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오귀스탱에게 그녀는 북극 지역에서 그가 모피 사업을 하며 10년 동안 동거했던 육체적 관계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녀가 나타나서 자신을 찾는다는 전언이 오자 이미 부유한 집 딸과 타산적 결혼을 하고 난 오귀스탱은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귀찮은 생각이 앞선다. 뜨거웠던 육체적 사랑의 기억도 얼핏 스칠 뿐 그나 그의 자문역인 성당 참사원이나 모두 그녀를 북극 지역의 그녀 고향으로 돌려보낼 궁리를 하며 그는 시대의 술집을 전전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델리아는 프랑수아 집의 하녀로 들어가 그의 육체적 상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와 같이 그녀는 영원히 그림자 존재가 되어 자기의 삶을 갖지 못한다. 성당에서 프랑수아가 의 모든 사람들이 영성체를 하는 가운데 프랑수아가 아무리 부탁하거나 협박을 해도 끝끝내 영성체를 하지 않고 그녀는 홀로 남아 있을 뿐이다.

Le seul point auquel elle s'accrochait de toutes ses forces, comme à ce qui lui restait d'honneur, demeurait ce refus de communier, de crainte de commettre une imposture vis-à-vis de ce Dieu qui l'avait abandonné. (T; p.149)

은혜를 다해서 그녀가 매달리는 것은 남아있는 명예 같은 것이었는데, 그녀를 버린 하느님에 대하여 위선을 저지르는 게 될까봐 영성체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십자가 앞에서 오귀스탱과 백년가약을 맹세했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하

18) 퀘벡 지역의 인디언 원주민 종족들의 권리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퀘벡의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겨우 1985년에 이르러서이다. Gagnon (A.-G.), QUÉBEC : *État et Société*, p.333. 참조.

느낌과 오귀스탱과 사회로부터 영원히 소외된 존재로 남아 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우리는 안느 에베르의 중·단편집 『격류』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통하여 그들을 소외시키는 현실과 그들의 그에 대한 대응 방식들을 살펴보았다. 작가 자신이 등장인물들의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해석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지만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님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작품집의 인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인물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면에서 소외를 겪는 것은 단순히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폭력으로 소외를 겪으며 필경 자신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소외된다.

다음으로 소외시키는 주체는 근본적으로 사회와 역사라는 사실이다. 작품의 인물들이 겪는 인생의 부당함은 다름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후진성, 현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았던 당대 퀘벡인들의 민도,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탈종교적 의무교육제도의 미확립 등으로 말미암아 지배층이 아니었던 일반 민중들을 소외된 존재로 만든 그 시대의 현실에 있었다.

그리고 안느 에베르가 중요한 구절을 보여주듯이 과거 영국의 퀘벡 정복이 프랑스계 퀘벡인들에게 깊은 역사적 상흔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작가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안느 에베르 작품 세계의 주요 테마 중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끝으로, 소외시키는 현실에 대응하는 등장인물들의 양상들을 보면 도피적 환상, 자기 파괴, 빗나간 복수, 영원한 소외 등으로서 퀘벡에서 조용한 혁명이전의 어지러웠던 정치 상황과 경제 침체기의 퀘벡인들이 지냈던 정서 상태의 단면들을 보여준다 하겠다.¹⁹⁾

19) Cassista와 Simard는 “등장인물 모두가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tous sont à la

결론적으로 폭력과 소외를 주로 다룬 『격류』는 고백도 지적했듯이²⁰⁾ 안느 에베르의 이후 소설 작품들의 원천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격류』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이 폭력의 수동적 내면화에 머문다면, 『격류』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자유에 대한 추구가 더욱 강렬해지는 것과 함께 작가가 퀘벡인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경향이 짙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알라르가 『격류』를 가리켜 당대에 드물던 내면적 사실주의의 훌륭한 예를 보여 주었다고 한 것은²¹⁾ 바로 안느 에베르가 그 어느 작가보다도 격류와 같은 인간 내면의 풍경을 진정성 있게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충권, 「안느 에베르의 『흰가마우지』에 나타난 퀘벡인의 자화상」, 『프랑스학연구』 제50집, 2009.
- BIRON, Michel et al., *Histoire de la littérature québécoise*, BORÉAL, 2007.
- BROCHU, André, *Anne Hébert, Le secret de vie et de mort*,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Ottawa, 2003.
- CASSICA, Claude et SIMARD, Jean, *LE TORRENT de Anne Hébert*, LEMAC, 2001.
- HAMBLET, Edwin, *La littérature canadienne francophone*, HATIER, 1987.
- HAMELIN, Jean et PROVENCHER, Jean, *BREVE HISTOIRE DU QUEBEC*,

recherche d'un équilibre)(*앞의 책*, p.42)고 하였는데 그와 달리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등장인물들은 긍정적 대응을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0) “L'écrivain Lucie Gauvin dira lors d'un colloque sur Anne Hébert: ”[ce] premier ouvrage en prose est en quelque sorte le “premier jardin”, mieux encore la source qui irrigue la suite.“ Cassista (C.) et Simard (J.), *앞의 책*, p.41에서 재인용.
- 21) Allard (J.), *Le Roman du Québec*, p.421: “Le Torrent avait donné en son temps un exemple très convaincant du réalisme intérieur alors peu répandu.”

- BORÉAL, 1987.
- HEBERT, Anne, *Le torrent*, Ed. Hurtubise HMH, 1989.
- LAHAISE, Robert, *La fin d'un Québec traditionnel, 1914-1939*, l'HEXAGONE, 1994.
- LINTEAU, Paul-André et al., *Histoire du Québec contemporain, Le Québec depuis 1930*, Boréal, 1989.
- LORD, Michel et CARPENTIER, André, *La nouvelle québécoise au XXe siècle, de la tradition à l'innovation*, Nuit Blanche Éditeur, 1997.
- MEYER, Philippe, *QUÉBEC*, Éd. du Seuil, 1980.
- PATTERSON, Janet et SAINT-MARIN, Lori, *Anne Hébert en revue*, voixetimages, 2006.
- PROVENCHER, Jean, *Chronologie du Québec 1534-2007*, Boréal, 2008.
- ROYER, Jean, *Romanciers québécois*, l'HEXAGONE, 1991.

❖ ABSTRACT

Phases of Alienation in *Le Torrent* by Anne Hébert

Kang, Choung-Kwon

In 1950, Anne Hébert published *Le Torrent*, a collection of seven short stories. These stories containing many shocking themes and expressions have placed her one of the pioneers of modern novels in Quebec.

This paper tries to analyze several phases of alienation described in the novels and the reactions of alienated characters in their situation.

Some examples of alienated and mentally or physically deformed characters in *Le Torrent* are François, Stéphanie, Stella, etc. Although the author wanted readers to interpret these characters on their individual level, this paper interprets them differentl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Alienation doesn't come from one's interior but his exterior. Society and history are major agents of alienation. The injustice of life imposed on the characters results from political and religious underdevelopment, cultural lowness, absence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of universal education at that time.

The conquest of Quebec by England left a deep and historical wound on the French Canadians. This fact is, in my opinion, one of the essential themes of Anne Hébert's novels.

In spite of all these alienating situations, the reactions showed by the characters of the novels are limited to escapist illusion, self-destruction, mistaken revenge, eternal submission, etc.

In conclusion, *Le Torrent* by Anne Hébert which deeply approached themes of violence and alienation could be called authentic landscape of the inner world of Quebecois before 'la Revolution tranquille.'

Key Words

안느 에베르, 격류, 소외, 불구화, 환상, 자기파괴

Anne Hébert, *Le Torrent*, alienation, deformation, illusion, self-destruction

논문접수일: 2015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17일